

“학폭 피해학생 치유 지원”

전북교육청, 내달 5일까지 전문상담기관·특별교육기관 공개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 5일까지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과 특별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학교폭력 전담기관 2곳, 피해학생 전문상담기관 22곳,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21곳, 성(네티페이커) 관련 교육기관 6곳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동안 학교폭

력 피해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피해학생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와 Wee센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경찰학교 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 결과는 2월 17일 발표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적극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인재 육성 위한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 성료

JST 공유대학 학생들

기업 탐방 통해 식견 넓혀

함소아제약·하림 등 방문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는 지난 21~22일 이틀간 'JST 공유대학 동계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대학에서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미래수송기기,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기업을 직접 탐방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혔다.

특히 학생들은 함소아제약, 하림,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해 현직자로부터 기업 소개와 직무 특장을 청정한 후, 기업별 현장 투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으로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인재가 지역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JST 공유대학 동계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교우 본부장은 “지역의 우수 기업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

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취업에 장려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늘까지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안 논의

전북교육청, 중·고교 교육과정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24일 이틀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학교자유시간 편성·운영 사항 및 학교자유시간 활용 교육감 승인 과목 심의 절차 정비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서 개정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사항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차기년도 입학 학생 교육과정 편제와 학점 배당 결과

제출 시기 조정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감축 등이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후 2월 초에 중·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개정되는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침 안내 및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설 연휴 교육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교육청, 학교 710곳 포함 직속기관 등 총 739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장이 개방되는 교육기관은 일선 학교 710곳을 포함해 분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39곳이다.

연휴 기간 교육기관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te.go.kr) 공지사항에서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 시 안전사고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설 연휴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한다”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동계 강화훈련 도내 학교 운동부 대상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동계 강화훈련 중인 도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 운동부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학생

중심의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50개 학교 58개 팀, 중학교 51개 학교 66개 팀, 고등학교 43개 학교 68개 팀 등 총 144개 학교, 192개 팀이다.

/장은성 기자

도내 직업계고 학생

45명, 공무원시험 합격

국가직 지역인재 14명 등

도내 직업계고 학생 45명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합격자는 국가직 지역인재(9급) 14명,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28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명 등이다.

국가직 지역인재는 직렬별로 △일반 행정 4명 △전직 3명 △일반기계 2명 △세무·관세·산림자원·일반토목·일반농업 각 1명씩이다.

또 전북자치도 지방직은 직렬별로 △일반토목 11명 △일반농업 9명 △건축 4명 △일반기계 2명 △일반전기·보건 각 1명이 합격했다.

전북교육청 지방직 공무원 합격자는 △건축 2명 △일반전기 1명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어려운 공직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공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와 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9개 지역의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빈 일자리 업종 기업의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무 시 4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063-290-1723/194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한루원.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명소'

남원 관한루원·남원관광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

남원시는 관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번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를 진행하며, 이번 선정은 남원시가 보유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한국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한루원은 한국인이 낳은 최고의 러브스토리 '춘향전'의 배경지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으로써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류형 관광지로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함파우유원지의 유아숲체험원, 키즈아트랜드, 달빛정원 등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원의 대표관광지 관한루원과 연계해, 문화와 예술이 결합한 관광사업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남원시 고유의 자원과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예술관광단지 조성을 비전으로 자연권, 예술권, 문화권 등 3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남원시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이번 선정은 남원시 관광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 관광지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남원만의 품성 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돌담길 따라 걷는 은은한 빛의 관한루원 돌담길과, 몽환적인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관한루원의 밤 풍경은 국내 대표적인 야간 볼거리로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도 선정됐다.

남원관광지는 춘향테마파크, 향공유주전통대, 국립민속극악원과 숙박 및 식음시설이 포진되어 체



전북문화관광재단, 올림픽

전북 유치 지원 릴레이 동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며 'GBCH(Go Beyond, Create Harmony)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기획한 캠페인으로, 도민의 응원을 모으고 전북의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재단은 이경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 3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올림픽 유치 응원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해 SNS 채널과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2036 하계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화합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캠페인의 후속 주자로 한국에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최무연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 조오익 회장, 전주문화재단 최라기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063-230-7410, 741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민원성 전북교육연수원장

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 민원성 원장이 2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김경직 교육청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민원성 원장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도전과 기원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를 통해 우리 학생들과 도민들의 글로벌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선수들과 관중들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성 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조현정 과학교육원장과 장익 미래교육원장을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혁신융합캠퍼스

전북혁신도시에 개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기전대학은 23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완주군수, 도의원, 전주기전대학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기전대학 혁신융합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2026년까지 총 32억원이 투자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역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기전대학은 치유농업과, 말산업 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과, 2차전지 소재부품과 등 총 4개 학과 200명(교원 20, 학생 180)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3월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설 명절 우리 전통문화 체험은 군산에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내일부터 '설날 한마당 큰잔치'

풍물놀이·가훈 써주기 등 마련... 내달 2일까지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025년 설 연휴 동안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펼쳐지는 큰잔치에는 풍물놀이, 가훈 써주기, 마술, 저글링, 캐리커처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이 열려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28일~29일 오후 2시에 새해맞이 신명 나는 국악 풍물놀이가 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지며 잔치의 막을 연다.

30일 오후 2시에는 박물관 로비에서 가훈 써주기 체험으로 올새해 소망을 담은 가훈을 받아 볼 수 있다.

28일과 2월 1일 오후 2시 박물관 3층을 방문하면 난민의 캐리커처를 가져 볼 수 있는 캐리커처 체험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내내 오후 2시

부터 4시까지 박물관 앞 광장 주변에서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우리 고유의 전래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전시도 불만하다.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수문화예술교육센터 단체인 '제3회 작가들의 외출'이라는 공예작품 전시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박물관과 이웃한 근대미술관에서는 박물관 소장품전 '너머의 세계', 장미 갤러리에서는 신춘자 작가의 '자기랑 나랑'과 고희 반영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설날 당일(29일)에는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여 많은 귀성객 및 시민들이 박물관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새일여성인턴·집담상담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새일여성인턴 및 집담상담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여성의 장기 고용 유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턴 종료 후 정규직·상용직 전환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내 구직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파견직근로자나

소비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숙박·음식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집담상담 프로그램 '취업 임문스쿨'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진로 미설정 구직자를 위한 기본과정(5일, 20시간)과 진로 설정 구직자를 위한 심화과정(3일, 12시간)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수료 후에도 직업훈련 연계, 지원 서류 컨설팅, 취업 알선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0월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